

올해 복(伏) 경기 전망



이 형 우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1. 현황

2003년 연말부터 2004년 초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닭고기 소비가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산 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닭고기 소비가 살아나면서 2004년 2월부터 육계가격은 강세를 보였다. 2005년 들어 육용 종계의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2004년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종계 생산성 저하로 시장성 있는 출하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5월까지 육계 가격은 전년보다 크게 상승했다.

7월 육계가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은 닭고기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장마기간이 길어 닭고기 소비가 부진했다. 2003년의 경우 하림화재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으로 육계 농가는 최근 10년간 7월 육계 가격 중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다.

2004년에는 종계 도태로 인한 공급 감소, 그리고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2000년(1,732원) 이후 가장 높은 가격(1,548원)을 나타냈다. 월별 도계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해마다 7월은 닭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초복과 중복이 있어 연중 소비가 가장 많은 달이다. 육계 시장에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육계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달이기도 하다.

〈표 1〉 월별 도계(소비)지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계지수	100.0	87.2	96.0	105.0	125.7	140.5	170.2	136.2	111.5	109.4	108.1	116.8
비고		질병·황사 발생					초·중복	말복				

※ 주 : 도계지수는 1996~2004년까지 해당월의 평균 도계수수를 구하고 1월을 100으로 함.

2. 병아리 생산 잠재력과 닭고기 공급

육용 종계 병아리 입식수수를 이용한 6월과 7월의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다음과 같다.

7월 초·중복(7월 15일, 25일)에 영향을 미치는 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동기대비 17.5%, 5월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4년 2~11월 종계 입식수수가 378만수로 2003년 동기 간보다 8.2% 증가했고, 작년 1월 27일~2월 초순까지 진행된 종계 조기도태(51만여수)의 영향 때문이다. 말복(8월 14일)에 영향을 미치는 7월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또한 전년동기보다 높을(11.4%)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

구분	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				전월대비 증감률(%)		
	4월	5월	6월	7월	5월/4월	6월/5월	7월/6월
2005년(A)	114.8	121.3	123.2	118.2	5.7	1.6	-4.1
2004년(B)	100.0	103.7	104.9	106.1	3.7	2.4	1.1
증감률(A/B)	14.8	17.0	17.5	11.4	-	-	

※ 주 : 잠재력 지수는 입식된 육용 종계의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7개월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계산했으며, 2004년 4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 자료 :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종계 입식수수를 이용한 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도계수수는 전년동기보다 16.3% 증가한 7,340만수로 전망된다. 무더위로 인해 종계 생산성 회복이 늦어질 경우 8월 도계수수 또한 7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11.4%)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도계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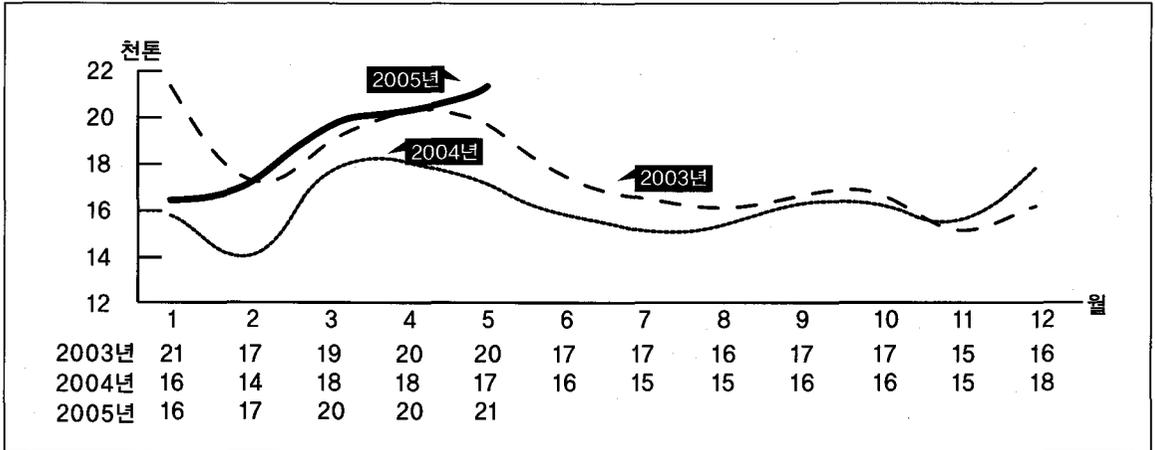
구분	도계수수(만수)			전월대비 증감률(%)	
	5월	6월	7월	6월/5월	7월/6월
2005년(A)	5,037	6,524	7,340	29.5	12.5
2004년(B)	4,472	5,309	6,312	18.7	18.9
증감률(A/B)	12.6	22.9	16.3	-	-

※ 자료 : 농림부(2005년 6~7월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 및 전망치)

7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5월 육용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동기보다 26.7%, 4월보다 6.3% 증가한 21,630톤이었다. 입란실적대비 6월 병아리 발생률이 전년보다 낮아 종계 생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6월 1~2주 평균 병아리 발생률은 76.2%이며 지난해 동기간보다 4.2%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대한양계협회).

〈그림 1〉 육용 종계 배합사료 생산동향



※ 자료 : 농림부

닭고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미국과 태국에서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2005년 1~5월 닭고기 수입량은 21,786톤으로 2004년 동기간보다는 72.9% 증가했으나, 2003년 (38,159톤)보다는 42.9% 감소했다(통관기준). 6월 12일 현재 닭고기 냉동 비축량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고기 수입은 중단된 반면 국내산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74.2% 감소한 165만 수(삼계 포함, 5월 도계수수기준 약 3%에 해당되는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계육협회 회원사 기준).

〈표 4〉 냉동 닭고기 비축현황 (6월 12일자 기준)

(단위 : 천수)

구분	미절단	절단	부분육	삼계	계
2005년(A)	177	62	577	831	1,647
2004년(B)	1,415	174	2,181	2,614	6,384
증감률(A/B, %)	-87.5	-64.4	-73.5	-68.2	-74.2

※ 자료 : 한국계육협회(회원사)

3.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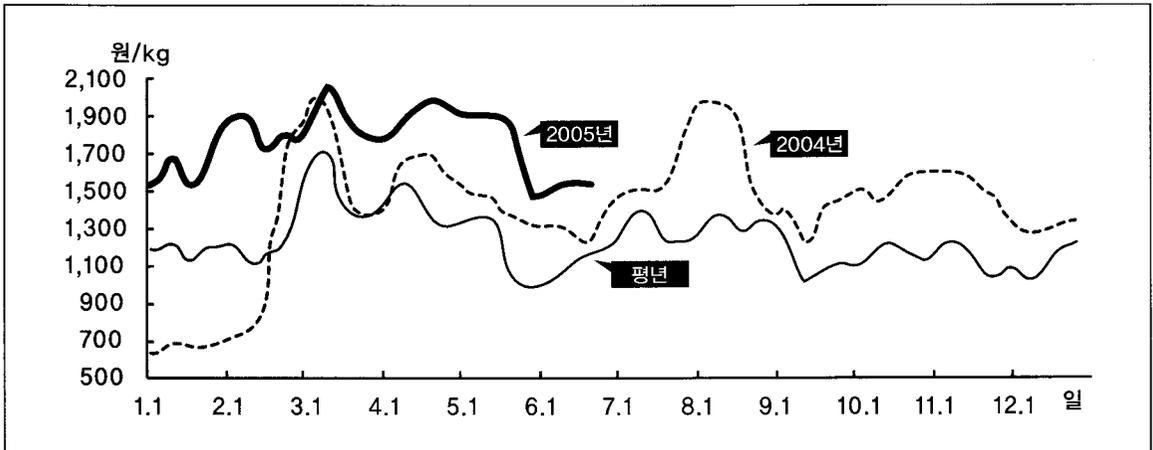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닭고기 소비가 예년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공급 측면을 놓고 보면 육계 생산성 저하, 냉동 비축 감소 등이 호재로 작용할 경우 올해 7월 육계 평균 가격은 강세

(1,600~1,700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7월과 8월은 닭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북 경기 육계 가격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올 여름철은 6월 하순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고 7월 하순에나 되어서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어 올해 북 경기 닭고기 소비가 예년보다 크게 감소할 경우 7월 육계 가격은 일시적으로 전망치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육계 가격을 살펴보면 8월(말복)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었던 점으로 비춰볼 때 장마 이후 8월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육계 생산성 저하 및 닭고기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8월 육계 가격이 7월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다. C

〈그림 2〉 육계 산지가격(농협발표가격)



※ 주 : 평년은 2000~2004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표 5〉 2005년 여름철 기상예보 (기상청)

기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년(18~25℃)과 비슷하겠음. · 6월 전반에는 일시적인 고온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음. · 7월에는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저온 현상이 나타남. · 8월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강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년(451~894mm)과 비슷하겠음. · 6월 하순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겠음. · 7월 하순에는 점차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음. · 장마 후에도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겠음.

※ 태풍 발생수는 평년(11.2개)과 비슷하겠으며, 우리나라는 평년(2.5개)과 비슷한 2~3개 정도 영향을 받겠음.